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서동이 「서동요」를 지은 까닭은?

신라와 결혼 통한 화친의 전략 개요

1. 서동은 누구인가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는 향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가요는 신라 진평왕 대에 백제의 서동(武王)이 지은 「서동요」이다. 대다수의 향가들이 신라의 사국 통일 전후에 이루어졌으나 이 「서동요」는 예외적으로 통일 이전에 지어진 노래이다. 서동은 '마를 캐던 아이' [穽童]일 뿐만 아니라 위낙은 '막내아들'의 의미인 '말동' 즉 '말자'(末子)의 뜻이다. 때문에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말통대왕'(末通大王)이라 적고 있다. 백제는 처음에는 형제 상속으로 왕위 계승의 전통을 세우다가 장자(太子) 상속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장자 상속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차자(次子)나 삼자(三子) 혹은 사자(四子)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터러는 형제(兄弟) 상속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태자 혹은 왕자들은 왕위를 되찾아 오기 위해 골육 간의 정쟁(政爭)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연(一然)이 '무왕' 조의 할주(劄注)에 옛 책에서 '무강'(武康)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왜(倭)나라에서 태어나 백제의 왕이 된 사마왕(麻蕪王) 즉 무녕왕(武寧王)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무왕을 무강왕 즉 무녕왕이라고 한 것은 서동이 설화에서 백제의 강역을 크게 확장한 무녕왕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전설적 영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서동 즉 무왕이 위덕왕(威德王)사후 갑작스럽게 왕이 된 혜왕(惠王)과 그의 아들 법왕(法王)을 이은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가 동성왕-무녕왕-성왕-위덕왕으로 이어진 왕족의 태자(太子)의 아우이든 아니면 다른 이복(異腹)왕자였던 간에 그는 분명 왕족의 핏줄을 타고났기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을 법왕의 아들로 적고 있으나 『삼국유사』 「왕력」 편에서 혜왕은 위덕왕의 아들로, 법왕은 혜왕의 아들로 적혀 있지만 무왕의 부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일연 역시 할주에서 「삼국사기」에는 법왕의 아들이라 하고 여기서는 과부의 아들이라 하니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제30대 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에 있는 용과 통하여 장을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穽童)이며, 재주와 도량이 한없이 넓었다. 마를 캐다가 팔아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 善化)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면서 가까이 지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꾀어 부르게 하니 그 노래는 다음과 같

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울/ 밤에 알을 안고 간다." (김완진 역) 동요가 장안에 퍼져 궁중에 알려지니, 백관들이 적극 간하여 공주를 먼 곳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귀양가는 길에 서동이 나와서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기뻐하며 그를 믿고 따라가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준 금을 내놓으며, 함께 백제로 가서 이것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자 하였다. 서동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었어?" 공주가 말하였다. "황금인데 백년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서동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서는 이런 것이 진흙처럼 쌓여 있소." 공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이것은 천하의 보배인데 당신이 금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이 보배를 우리 부모님의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금을 모으니 마치 구름처럼 쌓였다.

나제동맹 깨지며 왕권 약화 왕족 서동은 신라화친 특사

2. 선화공주와 미륵사 그리고 사택씨 왕비 융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知命)법사의 처소에 가서 금을 운반할 방법을 물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내가 신통력으로 옮겨 줄 테니 금을 가져오시오." 공주가 편지와 함께 금을 사자사 앞에 옮겨다 놓으니, 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에 신라 궁중으로 날라다 놓았다. 진평왕(眞平王)이 그 신통한 변화를 기이하게 여겨 더욱 존경하고, 항상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고, 서동은 이로 인해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루는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려고 융화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에서 나타나 신라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일을 맡으니, 법사는 신통력으로 산을 무너뜨려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삼회(彌勒三會)의 형상(像)을 본떠서 [法] 전(殿)과 [塔]과 남부(廊廡)를 각각 세 곳에 창건하였다. 진평왕이 백공(百工)을 보내 돕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 절이 남아 있다.

위의 기록은 '무왕' 조에 나오는 미륵사



선화 공주가 지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미륵사. 사진은 미륵사 당간지주와 1992년 복원된 동탑.

연기에 대한 것이다. 무왕과 혼인한 선화(善花)는 '예쁜 꽃'을 의미하며 셋째 딸을 의미하는 '셋희'의 차자(借字)로도 읽힌다. 만일 선화가 신라 진평왕의 딸이라면 첫째인 덕만(德曼)과 둘째인 천명(天明)에 이은 셋째 공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삼국유사』 '무왕' 조에서만 선화가 셋째공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가 공개되면서 미륵사의 설립 주체가 사택씨(沙宅氏) 왕비였다는 사실이 힘을 얻고 있다. 639년 1월에 안치된 이 「사리봉안기」에는 1) 이곳에 모신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이고, 2) 가람 설립과 사리 봉안의 주체는 사택 왕비이며, 3) 왕실의 안녕과 불법의 확산을 발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육변려문(四六變麗文)으로 이루어진 「사리봉안기」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가 생각하건대 범왕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근기(機)에 따라 감응을 보이시었고 무리(物)에 응해 육신을 나타냈으니 마치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인도) 왕궁에 의탁해 태어나시고 (사라) 쌍수 아래서 적멸을 보이셨으며 여덟 섬의 사리를 남기시어 삼천(대천)세계를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선광을 오색으로 빛나게 하여 행보를 일곱 바퀴 돌게 했으니 신통한 변화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전면) (竊以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 如水中月. 是以託生王宮, 示滅雙樹, 遺形八斛, 利益三千. 遂使光曜五色, 行

遮七遍, 神通變化, 不可思議.)
2)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아득한 세월(曠劫)에 선미한 씨앗을 심으시어 오늘의 이생(今生)에 수승한 과보를 받으셨으며,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어 삼보의 대들보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능히 깨끗한 재물을 삼가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이십구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았습니다. (我百濟王后, 佐平沙宅積德女, 種善因於曠劫, 殊勝報於今生, 撫育萬民, 棟梁三寶, 故能謹淨淨財, 造立伽藍, 以己多年(이하부터 후면)正月廿九日, 奉迎舍利.)
3) 바라옵건대 세세생생 공양을 올리게 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게 하여서 이 선근(善根)으로써 우러러 대왕 폐하의 수명(年壽)을 산악과 같이 견고히 하고, 치세(實歷)를 천지와 함께 영구히 하여,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장생을 교화하는 자량으로 삼으소서. 또 바라옵건대 왕후 자신에게 마음은 수경(水鏡)과 같아 범계를 비추어 항상 밝게 하시고, 몸체는 금강(金剛)과 같아 허공과 나란히 불멸하시니, 일곱 세의 구원까지 함께 복리(福利)를 일게 하시고, 무릇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함께 불도(佛道)를 이루게 하소서. (願使世世供養, 劫劫無盡, 用此善根, 仰資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實歷共天地同久, 上弘正法, 下化蒼生. 又願王后即身, 心同水鏡, 照法界而恒明, 身若金剛, 等虛空而不滅, 七世久遠, 並蒙福利, 凡是有心, 俱成佛道.)
이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미륵사와 서

탑의 설립 발원자는 사택씨 왕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리진 중탑(木塔)과 동탑(石塔)의 봉안기에도 사택씨 왕비 이외의 발원자가 있을 수 있다. 『삼국유사』 '무왕' 조의 기록에 의하면 미륵사의 설립 발원자는 분명히 선화공주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는 641년 3월에 왕위에 올랐고 5월에 무왕이 세상을 떠났다. 641년 10월에 왜국의 서명(舒明)천왕이 서거하자 의자왕은 조문사절을 왜국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1948년 부여읍 관북리 도로변에서 발견된 「사택지적비」에 의하면 사택 지적(沙宅智積) 역시 641년 11월에 서거했다. 그 이듬해인 642년 1월에 사택씨 왕비 역시 세상을 떠났다. 위의 두 기록 사이의 간격과 이들 역사적 사건을 연관지어 보아야만 거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무왕과 지적의 사후에 백제에서 친위 정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서기』(24권) 황국(皇極) 원년(642)조 기사에 실린 사택 지적이 죽은 641년 11월 기록과 관련시켜 문제를 풀어보면 의자(義慈)는 무왕 즉위 이전 선화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선화공주는 의자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해 볼

불교융성 양국상항 활용 승려분장 잠입, 선화공주 피어

수 있다. 무왕이 어렵게 왕위에 올랐듯이 의자 역시 무왕 33년에야 세자로 책봉되었다. 때문에 무왕은 자신과 선화공주의 소생인 의자를 무척 아꼈으며, 의자 또한 부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왕의 계비(繼妃)인 대좌평 사택지적의 딸인 사택씨 왕비에 효성을 다하고 그 소생의 이복 아우들에게 우애를 보이며 신망을 쌓아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서동요」의 해석

그렇다면 마[穽]를 팔아 생계를 하던 서동이 선화공주와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무왕' 조의 기사처럼 그는 지모와 매력에 뛰어난 인물로 보인다. 당시 백제 왕실은 불교식 왕명을 쓴 성왕(聖王)-위덕왕(威德王)-혜왕(惠王)-법왕(法王)의 치세 이래 불교가 극성하였다. 법왕은 조서(詔書)를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나 새매 같은 새들을 놓아 주도록 하였다. 심지어 고기잡이나 사냥하는 기구를 불태워 일체 금하게 하였다. 경신년에는 갓머리를 깎은 30명의 승려로 하여금 당시 서울인 사자성(부여)에 왕흥사(백마강가)를 세우게 하고 겨우 터를 닦다가 승하하였다. 아마도 서동은 불교를 매개한 일련의 화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로서 법왕에 의해 발탁된 것은 아니었을까? 서동은 신라와의 화친을 추진하려는 법왕의 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경의 수비를 쉽게 따돌릴 수 있도록 승려처럼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서라벌로 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서라벌에 이르른 서동은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선화와의 인연을 맺는 것이 신라 왕실과 백제 왕실의 화친을 위한 최고의 계책을 간파하였다. 해서 그는 노래를 지어 서라벌의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면서 부르게 하였다. "선화공주님은 [善花公主主隱]/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他密嫁良置古]/ 서동 방울[穽童房乙]/ 밤에 알을 안고 간다[夜矣卯乙抱遺去如]." 노래의 효험은 의외로 컸다. 아이들의 노래가 서라벌 곳곳에 퍼져 궁중에까지 알려졌다. 문무 백관들은 이 해괴한 노래를 듣고 왕에게 간하여 공주를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서동의 지모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서동요」는 단지 네 구절에 지나지 않는 노래이지만 그 안에는 백제와 신라가 화친할 수 있는 결정적 매개함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동성왕대에 시도된 적이 있던 나제동맹(羅濟同盟) 즉 결혼동맹(結婚同盟)이었다.

이처럼 '무왕' 조는 백제왕실과 신라왕실의 경쟁과 화친의 맥락을 시사해 준다. 남진 정책을 도모하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 동성왕이 신라 왕실과 맺은 나제 동맹이 깨어진 이후 백제와 신라는 권원기간(犬狽之間)에 있었다. 신라의 배신에 의해 성왕이 전사한 뒤 우덕왕은 백제의 대성(大姓) 귀족들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았다. 해서 위덕왕대 이래 왕실은 신권(臣權) 중심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혜왕과 법왕은 신권 중심의 질서를 왕권(王權)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호불왕이었던 법왕은 불교와 결혼동맹을 매개하여 신라와 화친을 도모하려 하였다. 법왕의 명을 받은 서동은 신라 왕실로 건너가 선화와 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진평왕과의 화친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덕에 서동은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동요」는 무왕의 지모와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뛰어난 정치가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성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원진, 『향가해독본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정 민, 『불국토를 꿈꾼 그들(문학의 문학, 2012).
이병교, 『삼국유사의 총합적 해석(상)』(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광불교강좌 안내

각목 스님의 청정도론(淸淨道論) I

10주



- 개 강 일 : 2013년 3월 18일(월요일)
- 강의진행 : 오후반(1시 30분) 저녁반(7시 30분)
- 수 강 료 : 100,000원(교재 별도)

『청정도론(淸淨道論)』(Visuddhimagga)은 1500년전 인도 출신의 붓다교사(Buddhaghosa) 스님이 스리랑카로 건너와서 지은 논서이다. 붓다교사라는 범명의 유래는 붓다교사 스님이 말씀하시던 마치 부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 한다.

상좌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근본말씀'이라고 한다. 팔리어로 지어진 주석문헌으로 경율론의 삼장을 해석하면서 불교의 핵심을 7가지 청정도론 정리한 책이다.

불광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각목 스님을 모시고, 청정도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광 불교대학

불광사에서는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분들과 함께하는 불교기본교육과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2년제 과정의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교기본교육(3개월)

- 주요내용
불자예절,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역사,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례, 불광신행 등
- 모집분야
3월 11일(월) 개강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오전 10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3월 9일(토) 개강
토요일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50분

불광불교대학(2년제 4학기)

- 모집분야
3월 5일(화) 개강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단, 재일·범화가 겹치는 날에는 오후 2시 ~ 4시)